

부분일식 못봤다면 8월 '별뚱별 쇼' 놓치지 마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올해 남아있는 환상적인 천문현상 발표

11월 '반영월식'·12월 목성·토성 '대결합' 등 다양한 볼거리

달이 태양을 가리는 희귀한 '우주쇼' 부분일식이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부터 오후 6시 4분까지 우리나라에서 관측됐다.

2020년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일식으로, 다음 부분일식은 10년 뒤인 2030년 6월 1일로 예정돼 있다.

대신 올해 밤하늘에서는 일식 외에도 다양한 '우주쇼'가 펼쳐져 아쉬움을 달래 줄 전망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0년도 주요 천문현상'에 따르면 올해는 일식 외에도 '반영월식', '3대 유성우', '목성·토성 충돌' 등 다양한 '우주 이벤트'가 펼쳐진다.

지구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월식은 오는 11월 30일 볼 수 있다.

이 월식은 태양-지구-달이 완전한 일직선이 아니라 조금 어긋나 있어 태양빛이 일부 보이는 반그림자(반영)에 가려지는 '반영월식'이다. 올해는 지난 1월 11일, 6월 6일 두 차례 일어났다.

반영월식은 달에 지구 그림자가 흐릿하게 비친다. 완전히 가리는 게 아닌 만큼, 육안으로는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다음 월식은 아시아 대북부의 지역,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북서부 지역에서 볼 수 있다.

'3대 유성우'도 볼거리다. 지난 1월 관측된 사분자리 유성우에 이어 오는 8월 12일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를, 12월 14일에는 쌍둥이자리 유성우를 볼 수 있다.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는 지구가 '스위프트-터

를' 혜성 궤도를 따라 뿌려진 '페르세우스 구름'을 지날 때 발생한다. 페르세우스 구름은 스위프트-터를 혜성이 태양 근처를 지나며 방출한 먼지 부스러기로, 이들이 지구 대기과 충돌할 때 유성우가 관측된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는 오후 10시께 가장 잘 보이며, 이날은 그믐으로 달이 뜨지 않아 관측하기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지구가 태양의 중력에 부서진 소행성 '3200페톤' 잔해를 통과할 때 나타난다. 12월 14일 밤 또한 그믐이라 유성우를 관측하기 좋다.

목성·토성은 각각 7월 14일·21일 '충'에 위치해 다다른다.

'충'은 태양-지구-행성 순서로 나란히 놓일 때를 뜻하며, 행성이 지구와 가장 가깝고 밝게 빛나 관측하기 가장 좋은 때다.

이날은 200배 이상 배율을 가진 소형 굴절망원경만으로도 목성의 띠, 토성의 고리, 카시니간극(행성 고리에서 발견되는 빈틈), 위성 등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목성과 토성의 '대결합'도 예정돼 있다. 오는 12월 21일 일몰(오후 5시 17분) 직후 서쪽 하늘에서 0.1도로 근접한 두 행성을 관측할 수 있다.

이처럼 두 행성이 마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근접하는 경우는 20년만에 일어난다.

한편 일식은 12월 14~15일 한 차례 더 관측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다. 이날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은 태평양 남부·남아메리카 남부·아프리카 남서 지역·남극 등에서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관측할 수 있는 다음 개기일식은 2035년 9월 2일 일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평양 지역,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미국의 5번째 화성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호. (NASA 제공)

美 화성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 코로나19 세계 의료진 헌신 감동 7월 20일 감사판 달고 간다



퍼서비어런스에 장착될 코로나19 의료진 감사판. (NASA 제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내달 20일 예정대로 발사되는 미국의 다섯번째 화성탐사 로버(무인탐사차량) '퍼서비어런스'(Perseverance)가 세계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특별한 판을 장착하고 화성으로 간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8일 코로나19 확산에도 퍼서비어런스 발사 준비가 가능했던 것은 의료진의 노고 덕분이라며 코로나 19 방역 전선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는 세계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를 나타내는 '코로나19 퍼서비어런스 판'을 본체 왼쪽에 붙였다고 밝혔다.

가로 13cm, 세로 8cm의 알루미늄으로 된 이 판에는 의료계를 나타내는 고대 상징인 뱀이 휘감긴 지팡이가 지구를 떠받치고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네버럴에서 발사된 우주선이 지구를 돌아 화성으로 향하는 궤도가 그려진 그래픽이 새겨져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JPL)의 퍼서비어런스 프로젝트 부책임자인 매트 윌리스는 "다른 이를 위해 헌신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다"면서 "미래 세대가 화성을 여행하다 이 로버를 봤을 때 2020년 지구에 이런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했다.

NASA는 지난 2012년 12월 퍼서비어런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애초부터 발사 목표를 위해 여름으로 잡고 준비를 해왔다.

지구와 화성의 공전 궤도와 주기 상 26개월마다 '발사의 창'이 열리는데, 올 여름에 발사하지 못하면 2022년 9월까지 2년여를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올 초 코로나 19 확산으로 여러 시설이 폐쇄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발사 일정을 고수해 왔다.

/연합뉴스

'페이스북 샵스' 국내 출시 무료 온라인 상점 서비스 한국 등 아시아국가 확대

페이스북은 무료 온라인 상점 개설 서비스 '페이스북 샵스'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무료로 각자의 디지털 상점인 '샵'을 개설하고 홍보·판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각 제품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판촉 효과를 높이는 '컬렉션 만들기' 기능과 브랜드 색상과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모바일 앱에서 원하는 브랜드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접속한 다음 '샵 보기'를 클릭하면 판매자가 등록한 제품을 볼 수 있다.

페이스북 샵스는 지난달 미국·유럽 일부 국가에서 선보였고, 이번에 한국을 포함한 총 8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로 확대 출시됐다.

국내 서비스 파트너로는 '카페24'가 참여한다. 이재석 카페24 대표는 "카페24와 페이스북 간 협력력이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보다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이번 출시가 궁극적으로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에게도 즐거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데 핵심적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화려한 나비성운 미항공우주국(NASA)이 지난 19일 공개한 허블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나비 성운' NGC 6302 사진을 공개했다. 근자외선에서 근적외선까지 디테일한 빛 스펙트럼을 관찰한 이번 사진은 지금까지 공개된 사진 중 가장 자세하게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NASA 제공)

안랩 "MS 정품 인증틀 위장 악성코드 실행 파일 유포 주의"

안랩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정품 인증틀로 위장한 악성코드 실행 파일이 유포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안랩에 따르면 악성코드 공격자는 불법 파일 공유·다운로드 사이트에서 MS 불법 정품 인증틀과

함께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다.

MS 제품을 불법으로 정품 인증하려고 파일을 내려받아서 실행하면 불법 정품 인증 틀이 설치되지만 '비다르(Vidar)' 악성코드가 동시에 잠입한다.

비다르 악성코드는 감염 PC에 담긴 사용자 계정

정보, 암호화폐 지갑 주소 등 주요 정보를 유출한다.

안랩은 "이번 악성코드는 실제 불법 정품 인증틀과 동일한 아이콘과 파일명을 사용하고 틀 설치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감염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랩의 V3 제품군은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차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